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한중 수출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China
regarding export insurance system

최창열(Chang-Yeoul Choi)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대우교수
주지자(ccy666@skuniv.ac.kr)

함형범(Hyung-Bum Ham)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교신지자(hbham@skuniv.ac.kr)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수출보험제도 현황 | 참고문헌 |
| I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 ABSTRACT |
| IV. 실증분석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수출보험, 수출금융, 보험제도, 금융제도, 만족도

* 본 연구는 2013년 (사)한국무역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토론을 담당하여 연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2분의 토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서론

한국경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이 잘 될 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중소기업에게는 더 절실하다. 2013년 7월 K-sure와 외환은행이 경기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중소Plus+ 단체보험’을 체결하였다. 은행 최초 단체보험이자,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단체보험일 것이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금년 3월 새롭게 도입하여 적극 운영 중인 제도로,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수출유관기관,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페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4월 코트라(Kotra)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경남도청, 오창과학산업단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기관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해왔고, 금융기관으로는 외환은행이 최초로 단체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이번 가입으로 외환은행은 경기도 491개 수출초보기업을 포함하여 외환은행을 이용하는 총 2,288개의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 K-sure와 단체보험을 체결하여 외환은행의 기존 금융서비스에 더해 무역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들은 수출거래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수입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거래라는 점과 국내 상거래에 비하여 상품의 운송기간이 길고, 수출거래 당사자 간의 언어, 법률, 제도, 상거래관습 등이 서로 다르며, 신용상태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비상위험, 신용위험, 운송위험, 환위험, 재난위험 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상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위험은 해상보험 부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수출계약이행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유발하는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은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파산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2010)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4개 수출기업 중 1개 기업 비율로 수출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도 수출보험 사고율은 2008년에 비해 사고율이 2.5배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및 신흥시장 국가신용도 하락, 불투명한 환율 전망 등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0년에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이 총 8,176억 원에 달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회수를 의뢰한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의 수출보험 활용과 수출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수출보험제도

1. 수출보험제도의 개관

1) 수출보험제도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신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였다.

수출보험의 역할 및 기능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금융 공급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수출진흥정책수단,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수단, 수출관련 정보제공, 효과적인 경제협력수단 등을 들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¹⁾

수출보험은 1890년대에 영국의 민간보험업자들이 신용보험사업의 범위를 국내거래에서 대외거래로 확대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 민간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²⁾ 정부가 관여하는 수출진흥정책으로서 수출보험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외환 및 무역관리 강화로 수출거래에서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영국을 필두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및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부터 시행되고 발전되어 왔다. 또한 무역거래에서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로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체상품인 수출신용보험의 이용이 증가, 수출신용보험

1)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국제금융위험관리』, 제10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3, pp.50-51.

2) 심의섭 외, 『수출보험의 이해-수출보험 개관』, 세창출판사, 2009, pp.1-15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OECD 가입국 및 주요 개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모두 58개국에서 66개의 기관이 자국수출 기업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수출촉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시장특성에 따라 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정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수출보험 제도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³⁾

OECD의 34개 회원국 중 29개 회원국은 모두 공적수출신용제도를 공적수출신용의 가장 중요한 지원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형태는 국가별 필요에 따라 직접대출제도 및 이차보전제도가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신용보험과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운영형태는 수출보험기관만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통합기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수출보험과 직접대출기관을 병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표 II-1〉 OECD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형태

구분	국가	국가수
수출보험기관만 운영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벨기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16개국
수출보험기관 및 직접대출기관 병립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헝가리	7개국
수출보험·직접대출 통합기관 운영	미국, 멕시코, 캐나다, 터키, 호주, 슬로바키아	6개국
미확인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3개국

출처 : OECD Yellow Book II,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 p.183. 재인용.

2) 수출보험제도의 중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정책의 핵심은 수출기업에 대한 저자금의 풍부한 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지원과 각종 세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지원 이었다. 이와 같은 금융 및 세제지원은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적지원에 의하여 실행되었으며, 국내 기업은 이 같은 정

3)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 p.140.

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여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규모를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제정지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중 세제지원 부분은 거의 모두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을 제외하고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대표적인 간접수출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보험의 경우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서는 수출성과와 연계하여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을 보전하는데 부적절한 보험요율로서 정부(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별기관)가 수출신용, 수출품의 비용증가, 환리스크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에서 ‘장기적’에 대한 기간개념이 불명확하고 실제 적용시의 규정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다. 또한 세계무역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수출보험 사업이 장기적 적자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평균 손해율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으로서는 수출보험의 적자부분에 대한 보조금문제를 서로 제기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수출금융 중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역금융 등은 WTO 체제하에서도 수출지원정책의 수단으로서 계속 활용될 수 있으나 그 효과 면에서 수출금융지원과 시중금리의 차이는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금융제도 가운데 무역금융과 산업설비금융은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면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제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연불 수출금융의 경우 대출이율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나 대출기간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에 외국 기자재 의존율 또는 국산 기자재 의존율을 규정하고 있어 마찰의 소지를 갖고 있다. 특히 연불 수출금융에서 인도 후 금융과 연계되는 인도전 금융은 시장금리보다 저리로 공급되고 있어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다. 따라서 수출지원금융이 WTO 체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금난 또는 조달금리의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된다.

결국 정부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간접지원방식은 수출보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보험의 역할도 과거의 단순한 수출대금의 담보기능에서 벗어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수출금융에 대한 수출지원기능이 약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의 금융적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⁴⁾

2. 한·중 수출보험제도

1)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공포된 후 총 8차례의 법개정을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3차례의 수출보험법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2009년 수출보험 지원실적 165조 원을 달성하였고 2010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2013년 말 기준 단기성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기타보험의 총 26개의 상품이 구분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단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뿐만 아니라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매, 제조부터 수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출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제공 및 수입지원 등 무역 관련 종합금융지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

〈표 II-2〉 한국의 무역보험 상품

구분		내용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중소기업 Plus+보험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재산적 피해를 담보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를 이행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등의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수출방식 수출에서 수출대금의 미회수 또는 투입장비의 권리상실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주식취득 등 해외투자 후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보상
	해외사업금융 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서비스 조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 책임으로 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4) 이장수(2008),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실태와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학위논문.

구분		내용
	이자율 변동보험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이익은 환수)
	수출기반보험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외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기타 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시 환수
	탄소종합보험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녹색산업종합보험	지원 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형태로 제정하고,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수출보험기금과 별도로 투자위험보증계정 운영)
신용보증	선적전보험 선적후보험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앞 수출금융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co.kr), 2012.12.29. 기준

무역보험은 수출 증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단기위주의 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무역보험종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기수출보험·수출보증보험·환변동보험을 비롯하여 총16개 종목을 운용하고 있으나, 총인수 실적 중 단기수출보험·중장기수출보험·수출보증보험·환변동보험에 편중되어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2011년 도별 무역보험 종목별 인수현황은<표 3>와 같다.

<표 11-3> 한국의 무역보험 인수현황

(단위 : 억원, 2012년 기준)

구분	단기	중장기	신용보증	환변동	계
2008	947,120	190,004	15,625	145,268	1,298,017
2009	1,443,997	131,841	59,637	14,128	1,649,603
2010	1,624,168	160,349	61,962	27,043	1,873,522
2011	1,706,123	138,286	59,093	18,292	1,921,795

2) 중국의 수출보험제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관리제도로 되어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수단은 입법, 행정 및 경제적 방법이 이용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채택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 제도로는 수출입관리제도, 수출입상품 검사와 수출입화물통관 및 관세제도가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은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 및 세칙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보험제도는 한국에 비하여 그 종류가 적은 편이다. 중국수출보험제도의 특징은 수출신용보험에 법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했으며, 보험의 선택범위가 적다. 또한 피해보상 보험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손해 배상 비율이 적다.

중국의 공적수출신용제도는 중국수출신용공사(SINOSURE)와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이 담당하고 있다. SINOSURE는 수출보험과 보증업무를 그리고 중국수출입은행은 중국의 수출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SINOSURE는 정부재정예산에서 출연한 수출신용위험기금으로부터 40억 위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운영종목을 살펴보면, 단기수출신용보험, 중장기수출신용보험, 투자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수출신용보험에는 종합보험, 총괄보험, 신용장보험, 특정구매자보험, 구매자 위약보험, 특정계약보험이 있으며, 중장기수출신용보험에는 수입업자 대출보험, 수출업자 신용조험 등이 있다. 또한 투자보험은 국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투자관련 위험의 문의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해외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다. 각 제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중국의 무역보험의 종류

구분		내용
단기성 보험	종합보험	1년 이내의 모든 수출신용거래 및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주는 제도
	총괄보험	비신용장방식을 사용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지급인도조건, 인수도 조건, 외상매매방식의 거래에 사용
	신용장보험	1년 이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주는 제도. 신용장 결제조건으로 수출시 발생하는 회수관련 비상 및 비상위험을 책임지는 보험이며, 이용하기 편리하여 수출업자는 신용장거래 전부를 통일적으로 부보하거나 또는 건별로 부보가능
	수입자위약보험	수입자위약보험은 수출업자가 분할결제방식으로 수출시 수입자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적전 및 선적후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보험으로 분할결제기간은 360일을 초과하지 않음. 기계전자제품 및 종합기계설비 수출을 위해 위험담보 제공

구분		내용
	특정계약보험	특정계약보험은 중국수출업자를 위해 특별히 설치한 것으로서 수출업자의 특정계약에 의한 수출대금 회수위험을 책임지는 보험이 보험은 거래 수출금액(2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기계전자제품과 종합기계설비 수출에 해당됨. 그중 비신용장방식 수출의 결제기한은 180일로 하며 360일로 연장가능.
	특정수입자보험	특정수입자보험은 중국 수출업자를 위해 특별히 도입한 것으로서 중국 수출업자가 1개 또는 몇 개 이상의 특정 수입자앞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시 발생하게 되는 신용 및 비상위험을 책임지는 보험.
국내거래신용보험		국내거래신용보험은 기업의 국내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파산 또는 지급지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보험
증장기 수출 신용보험	구매자신용보험	구매자신용보험은 수입자가 신용으로 용자할 경우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에서 대출은행앞 상환위험을 담보해주는 정책성보험임. 이보험에서 대출은행은 피보험인이고 보험계약자는 수출업자일 수도 있고 대출은행 또는 용자인도 가능함. 단 일반적으로 대출은행이 직접 부보할 것을 요구.
	공급자신용보험	공급자신용보험은 중국의 수출확대와 회수담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책성보험이 보험은 비상 및 상업위험으로 인하여 회수금 지급지체로 인한 수출업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임
투자보험		투자보험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임
보증보험		기업의 신용등급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출용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출기업과 수출업자앞 용자를 제공하는 은행을 위한 보증

출처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2008년도 보고서 ,수출보험운영종목

2000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기에는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무역 및 외환거래 자유화 함께 중국정부의 무역관리 정책이 일부는 수출신용보험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다.

I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1. 선행연구 검토

구중순·박광서(1994)⁵⁾는 한국수출기업과 일본수출기업의 수출위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양국 수출기업들의 수출위험 관리방법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수출기업은 한국의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수출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

5) 구중순·박광서, “한·일 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19권 1호, 1994, pp.397-421.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기업은 수출거래에서 수출기업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수입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에 따라 수출대금 미회수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 수출기업은 수출거래시 표시통화의 환율변동가능성과 환차손을 기타 위험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제현(2000)⁶⁾은 수출위험관리이론과 수출보험제도, 수출성과에 관한 이론, 고객만족이론을 결합시켜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특성과 수출보험공사특성, 수출보험제도 특성이 수출위험관리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고 수출위험관리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은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와 T-test를 활용하였다. 특히 수출성과(수출성장과 매출액)를 수출보험 이용기업과 이용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성과 측정을 하였다.

이은재(2003)가 수출보험 운용종목 중에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가격변화에 따른 수출변화의 정도와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수요를 분석하였다

방희석·박근식(2006)⁷⁾은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기업을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수출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이 현재 이용 중인 수출보험에 비교적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기업이 수출보험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수한도 및 담보 책정금액이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조원길·김석태(2006)⁸⁾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에 대한 활용 극대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실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무역보험공사 차원의 집중적 교육 필요, 인수 한도 담보책정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금 수단별 보험요율 재조정 및 인하, 중소기업의 경영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홍로(2007)⁹⁾는 한국 중소기업수출기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기업특성, 수출거래특성, 전자무역특성이 수출위험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수출위험의 인식도는 수출위험의 관리방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수출위험 관리방안은 수출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182개 중소기업수출업체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 T-

6) 이제현,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09.

7) 방희석·박근식, “수출보험제도의 만족도조사와 발전방안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6, pp.215-234.

8) 조원길·김석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실태분석”, 『수출보험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6, pp.137-161.

9) 이홍로, “한국중소제조 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56

검증을 통하여 수출위험관리방안과 수출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장수(2008)¹⁰⁾는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출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수출 기업의 리스크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보험제도의 재무적 혜택요인이 클수록 수출보험에 대한 만족도 및 수출보험제도 활용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영·홍선의(2008)¹¹⁾는 한일 수출보험과 수출촉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양국의 수출보험 손해율과 수출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2000년대 들어 2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들어 3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손해율에 있어서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평균 300%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 손해율 284%보다 높은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심의섭(2009)¹²⁾은 녹색성장, 녹색수출, 녹색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녹색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녹색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이 10대 무역국 달성과 10% 진입을 위한 한국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해 수출진흥 주요정책 중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 수출채권보험제도 등 수출금융과 수출보험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보험의 활용을 위한 one-stop서비스와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학노(2009)¹³⁾는 리스크 관리 이론과 무역보험 인수 등 통계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전용보험을 신설, 운용할 것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지역과 이들 지역에 대한 무신용장 수출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William(2010)¹⁴⁾은 수출신용보증과 수출금융의 연계는 미국수출업자들에게 국제 거래 증가, 대출 가능성 제고, 현금흐름 가속화, 신규시장 진입, 위험과 손실이 완화된다고 제시하였다.

윤기관·김보민(2010)¹⁵⁾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율 제고방안을 통해 수출보험 기금담보

10) 이장수,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실태와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0.

11) 이서영·홍선의, “한·일 수출보험과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495-513.

12) 심의섭,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을 위한 녹색수출보험”, 『무역보험연구』, 제10권 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pp.49-77.

13) 이학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0권 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pp.25-48.

14) William Laraque., “Good News for U.S. Exporters”. *Managing Imports& Exports*, May 2010, Issue14, pp.1-4.

15) 윤기관·김보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이용율 제고방안 모색”,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pp.169-187.

여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출보험종목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손해율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험료율의 설정은 낮은 부보율과 함께 수출보험 담보력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제시하였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수출신용보험제도가 국가별 다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신용)보험제도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 수출을 업으로 하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수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차이점은 기업의 특성에 의해 기업은 위험관리 방안을 선택할 것이고, 이러한 위험관리 방안은 기업의 수출 증가율 혹은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후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보완이 진행될 것이다. 즉, 기존의 연구가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본 연구는 성과이후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2) 가설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각 변수를 요인화하여 설정한 것이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두 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 수출기업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 관련된 가설이다. 둘째, 수출기업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가설이다.

가. 수출기업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간의 가설

Christensen et al(1987)¹⁶⁾의 연구에서 기업은 수출위험을 인식하여 수출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지역이 다양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고,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 인식정도가 클 것이며, 수출상품의 가격이 고가일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가설1은

16) Christensen, Carl H., Da Rocha, Angela and Gertner, Rosane Kerbel,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Exporting Success of Brazilian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87, pp.61-71.

수출기업특성이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1. 수출기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시장신용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7 규제에 대한 인식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수출기업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가설

Hideki Funatsu(1986)¹⁷⁾는 모든 국가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부터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수출보험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식하는 기업은 수출보험 활용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구가설 2로 설정하였다.

가설2. 수출기업의 성과가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매출액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간 FTA 시대를 대비하여, 수출기업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17) Hideki Funatsu, "Export Credit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Insurance*, Vol. 53, No.4, 1986, pp.679-692.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변수에 관한 신뢰성 검증은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연구모형을 통해 새롭게 얻어진 변수로 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출기업은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국무성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메일 조사는 2013년 9월1일~2013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회에 걸쳐 표본 대상 한국 300개 기업, 중국 1500개 기업에게 이메일 발송하여 이중 한국 85개, 중국 114개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유효 설문지 한국 79개, 중국 9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IV-1〉 설문지 회수현황

구분	배부	회수	회수율	분석대상
한국	300	85	28.3%	79
중국	1500	114	7.6%	98

3. 표본기업의 특성

표본기업의 업태를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의 경우 제조 무역업의 비중이 8.2%로 한국의 2.5%보다 비중이 컸다.

업종을 보면 한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40%를 차지하였으나, 중국은 전업종이 비슷한 수출로 나왔으나, 의류, 전기전자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에 비해 중국의 기업들이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43%가 10명 미만의 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은 10~50명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300명 이상의 기업도 2%로 나타났다. 결제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78.5%, 중국은 69.4%가 신용방식을 결제하였다.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이용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1년~2년이 전체 45.6%를 차지하였으며, 중국도 57.1%를 차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용을 시작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표본의 특징

구분	한국		중국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업태	제조업	48	60.8	64	65.3
	무역업	29	36.7	26	26.5
	제조/무역업	2	2.5	8	8.2
	계	79	100	98	100
업종	의류	12	15.20%	22	22.40%
	전기/전자	32	40.50%	20	20.40%
	문구	4	5.10%	12	12.20%
	음식료	6	7.60%	16	16.30%
	목재	2	2.50%	6	6.10%
	일반기계/장비	12	15.20%	4	4.10%
	석유화학	2	2.50%	3	3.10%
	피혁/신발	4	5.10%	5	5.10%
	금속	2	2.50%	4	4.10%
	기타	3	3.80%	6	6.10%
	계	79	100%	98	100%
종업원수	10명미만	34	43.00%	28	28.60%
	10명~50명미만	42	53.20%	46	46.90%
	51명~100명미만	2	2.50%	14	14.30%
	101명~300명미만	1	1.30%	8	8.20%
	300명이상	0	0.00%	2	2.00%
	계	79	100	98	100
결제방법	신용장	62	78.5%	68	69.4%
	추심	12	15.2%	24	24.5%
	송금	5	6.3%	6	6.1
	계	79	100%	98	100%
이용기간	1년미만	8	10.10%	12	12.20%
	1년~2년	36	45.60%	56	57.10%
	3년~5년	18	22.80%	15	15.30%
	5년~10년	12	15.20%	10	10.20%
	10년이상	5	6.30%	5	5.20%
	계	79	100%	98	100%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된 결과치의 정확성·의존가능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으로,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0.8 이상으로 일반적 기준(0.5~0.6 이상)¹⁸⁾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validity)은 연구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인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낸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이므로 모두 설명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신뢰성 분석

요인변수	측정변수	Cronhach's Alpha	
		한국	중국
위험인식	신용인식	0.895	0.906
	수출지역	0.902	0.885
	위험관리방법	0.888	0.887
	시장변화	0.887	0.881
	보험사고	0.885	0.89
	제품불량	0.826	0.842
	규제	0.891	0.824
성과인식	시장점유율	0.881	0.846
	매출액	0.884	0.812
Cronhach's Alpha		0.889	

〈표 IV-6〉 타당성 분석

	문 항	1
요인1 위험인식	신용인식	.754
	수출지역	.698
	위험관리방법	.741
	시장변화	.687
	보험사고	.661
	제품불량	.673
	규제	.585
	Eigen Value	3.309
설명된 총분산(%)	42.270	
누적분산(%)	62.267	
요인1 성과인식	시장점유율	.841
	매출액	.971
Eigen Value	2.949	
설명된 총분산(%)	42.135	
누적분산(%)	42.135	

18)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1998, p.250.

5. 만족도 분석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9개 변수 중 7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통계량 t값과 유의확률 p값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7〉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독립표본검정

요인변수	측정변수	한국(N=79)		중국(N=98)		t-value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위험인식	신용인식	3.53	0.94	3.40	0.84	-0.931	0.067**
	수출지역	3.38	0.67	3.29	0.62	-0.788	0.043*
	위험관리방법	3.29	0.99	3.26	0.95	-0.228	0.026*
	시장변화	3.14	0.63	3.31	0.83	1.678	0.149
	보험사고	3.24	0.78	3.16	0.80	0.874	0.019*
	제품불량	2.97	1.03	3.31	0.77	1.361	0.025*
	규제	3.03	0.97	3.00	0.86	-0.216	0.516
성과인식	시장점유율	2.88	0.88	3.08	0.56	0.651	0.018*
	매출액	2.60	0.86	2.91	0.72	2.367	0.025*

주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리함, 5=매우 그리함.

주 : *는 p<0.05, **는 p<0.1

V. 결론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무역당사자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특히 수출은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부문에 해당되고, 수출대금의 회수를 통해 기업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국제무역거래는 이국간의 거래에 따르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운송위험, 환위험, 재난위험 등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수출기업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거래를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의 수출환경과 수출거래의 특성상 수출기업은 많은 리스크들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세계 수출 순위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수출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리스크의 발생 빈도와 파급 효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율, 금리 등 시장 지표와 관련된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리스크관리는 필수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다양한 리스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환경은 WTO 출범 후 국가간의 장벽이 더욱 낮아졌으며, 수출시장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및 신흥시장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투명한 환율 전망,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등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는 더욱 더 높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수출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이 위험인식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1980년대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난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며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왔으나, 시스템 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한국보다 중국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수출보험제도를 단지 보험사고에 대한 제도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기업 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 활용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었다.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험 상품의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포괄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출보험의 목표인 국내기업의 수출 증대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국제금융위험관리」, 제10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3, pp.50-51.
- 이수일, “한·미·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p.65-84.
- 김광서, “한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0,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p.23.
- 구종순·박광서, “한·일 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19권 1호, 1994, pp.397-421.
- 이제현,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0, p.109.
- 방희석·박근식, “수출보험제도의 만족도조사와 발전방안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6, pp.215-234.
- 조원길·김석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실태분석”, 「수출보험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6, pp.137-161.
- 이흥로, “한국중소제조 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56
- 이서영·홍선의, “한·일 수출보험과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495-513.
- 심의섭,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을 위한 녹색수출보험”, 「무역보험연구」, 제10권 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pp.49-77.
- 이학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0권 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pp.25-48.
- William Laraqee., “Good News for U.S. Exporters”. *Managing Imports& Exports*, May 2010, Issue14, pp.1-4.
- 윤기관·김보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이용율 제고방안 모색”,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pp.169-187.
- Christensen, Carl H., Da Rocha, Angela and Gertner, Rosane Kerbel,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Exporting Success of Brazilian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 Business Studies, Fall, 1987, pp.61-71.
- Hideki Funatsu, "Export Credit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Insurance*, Vol. 53, No.4, 1986, pp.679-692.
- 심의섭 외, 「수출보험의 이해-수출보험 개관」, 세창출판사, 2009, pp.1-15
-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 p.140.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1998, p.250.
- Baumol, William J. and Alan S. Blinder, *Macroeconomics: Principles and Policy*, 7th edition, Orlando: *The Dryden Press*, 1997.
- Berry, Steven, James Levinsohn, and Ariel Pake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utomobiles: Evaluating a Trad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No.3, 1999.
- Bossche, Peter Vanden, "The Law and Policy of the WT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Krugman Paul R. and Maurice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4th edition, Addison-Wesley, 1997.
- Mastel, Greg, "American Trade Law after Uruguay Round", M. E. Sharpe, 1996.
- Matsushita, Mitsuo, Thomas J. Schoenbaum and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Moore, Michael O., "The Rise and Fall of Big Steel's Influence on US Trade Policy,"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rotection*, ed. A. O. Krue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Paster, R. A., *Congress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1926-197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ABSTRACT

Comparative study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China regarding export insurance system

Chang-Yeoul Choi* · Hyung-Bum Ham**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level of both countries' export companies abou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which can cause problems in Korean-Chinese FTA in this age of spreading FTA. Through this research, it surveys of the system user satisfaction of two na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s as follows:

Awareness of credibility (3.53), awareness of exporting area (3.38), awareness of risk management (3.29), awareness of market change (3.14), awareness of insured accident (3.24), and awareness of regulations (3.03) present positive responses to the export insurance system but awareness of defective product (2.97) was relatively unsatisfied.

Though it is hard to compare directly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orting systems of Korean and China, this research shows the need of various export insurance products, and that most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are generally satisfying with export insurance products at present.

Key Words : Export Insurance, Export Financial, Insurance System, Financial System, satisfaction level

* Treatment 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ccy666@hanmail.net First Author)

** 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jhham@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